

(3) 타마츠시마진자(신사) (제 6 권 918 번 · 919 번)

【알기 쉬운 문장】

<오른쪽 시>

오키츠시마 아리소노타마모 시오히미치 이카쿠리유카바 오모오에무카모

<왼쪽 시>

와카노우라니 시오미치쿠레바 카타오나미 아시헤오사시테 타즈나키와타루

【해설】

<오른쪽 시>

이 시는 만요슈(만엽집) 제 6 권에 실린 시(918 번 시)입니다. ②의 시비 초카(장가)에 덧붙여진 “한카니슈(반가 두 구절)” 중 제 1 구절 째가 이 시입니다. 와카노우라, 타마츠시마 전경을 읊은 초카(장가)에 대해 이 시에서는 시점을 바다 건너 섬으로 한정합니다. 지금은 썰물 때입니다만, 바다의 움직임은 썰물에서 밀물로 바뀌며 바다 깊은 곳의 거친 해안에 뿌리를 내린 해조류가 차오르는 조수에 흔들리며 점점 바다 속으로 사라져 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해조류의 움직임을 통해 자연의 신비를 접하는 감동을 읊은 시입니다.

<왼쪽 시>

이 시는 만요슈(만엽집) 제 6 권에 실린 시(919 번 시)입니다. ②의 시비초카(장가)에 덧붙여진 “한카니슈(반가 두 구절)” 중 제 2 구절 째가 이 노래입니다. 제 1 구절 째로 노래한 밀려오기 시작한 썰물은 더우기 세력을 증가해 와카노우라에 가득 차오릅니다. 갯벌에서 먹이를 찾고있던 학의 무리는 조수에 쫓기듯 날아올라 갈대가 자란 해안가를 향해 날아갑니다. 밀려오는 조수와 힘차게 날아가는 학의 무리, 그리고 와카노우라의 웅대한 자연을 활동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헤이안시대 “고콘 와카슈(고금 화가집)” 가나 서문에 소개된 것으로 한번에 와카노우라를 대표하는 시로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랑받고 있습니다.

만요슈에는 “와카노우라(화가의 포)를 와카노우라(약의 포)라고 썼습니다.